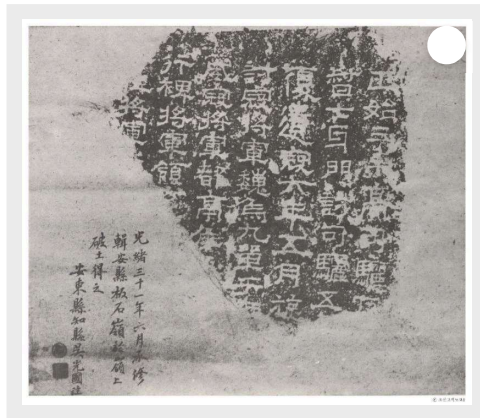


동천왕[東川王]

위(魏) 관구검(毌丘儉)의 침입을 물리치다

209년(산상왕 13) ~ 248년(동천왕 22)



위 관구검기공비(魏毌丘儉紀功碑)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동천왕은 고구려 제11대 왕이다. 동천왕은 당시 요동에서 세력을 떨치며 고구려를 위협하던 공손씨(公孫氏)를 위(魏)나라와 함께 멸망시켰다. 그러나 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양국은 긴장관계로 접어들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안평(西安平)을 선제공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위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았지만, 이를 물리치고 국력 회복에 힘썼다.

2 동천왕의 가계와 왕위계승

동천왕은 동양왕(東襄王)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우위거(憂位居)이고, 어릴 적 이름은 교체(郊薈)이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에는 위궁(位宮)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10대 산상왕(山上王)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관나부(貫那部) 주통촌(酒桶村) 출신으로, 이름은 후녀(后女)라고 하나 성은 전하지 않는다.

동천왕의 출생과 관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산상왕은 형인 고국천왕(故國川王)이 죽은 후, 고국천왕의 왕후인 우씨(于氏) 덕분에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형의 부인인 우씨를 그대로 자신의 왕후로 삼았다. 하지만 산상왕과 우씨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 산천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꿈에서 하늘이 “내가 너의 소후(小后)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으나, 당시 산상왕에게는 소후가 없었다. 몇 년 후, 교제(郊祭, 천자가 교외에 단을 쌓고 천지에 지내는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서 이를 잡으러 가다가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담당 관리가 잡지 못하는 것을 이 마을의 여인이 잡았다. 산상왕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관련사료](#) 이후 주통촌 여자가 아들을 낳자 교제에 쓸 돼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라 하여 아이의 이름을 교체(郊薈)라고 하고, 여자를 소후로 삼았다.

고구려의 왕들은 대대로 연나부(椽那部, 혹은 절노부) 출신의 왕비를 맞이해 왔다. 그럼으로써 연나부 세력을 게루부(桂婁部) 왕실의 협조자로 만들고, 이들을 이용해 왕권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